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우자조금

04

포커스

추석맞이
한우직거래장터

07

자조금 소식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

16

미디어 속 한우

넉넉한 추석
한우로 풍요롭게

18

협회 소식

전국한우협회
창립 제19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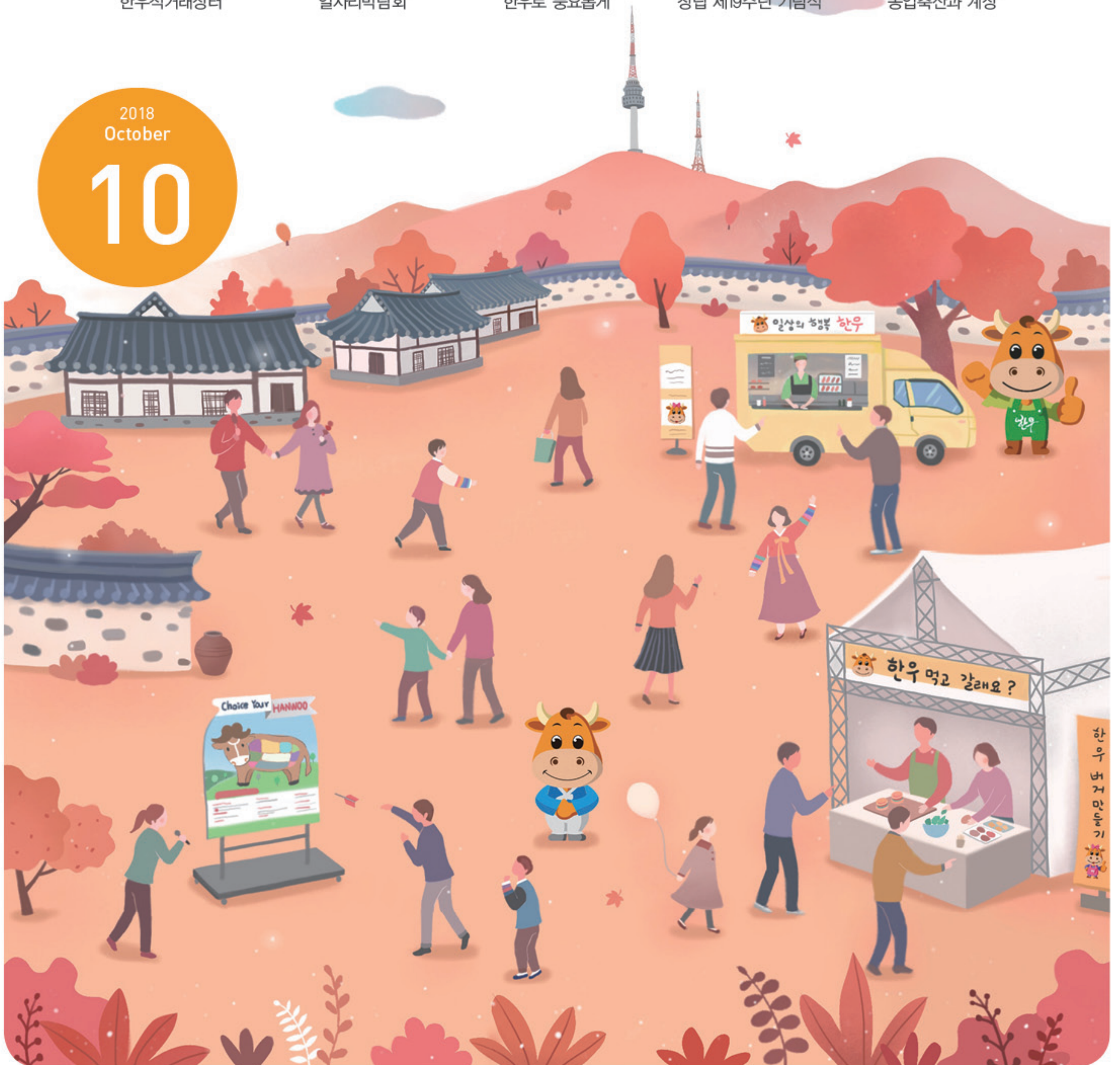
20

피플

세종시청
농업축산과 계장

2018
October

10



CONTENTS

2018. 10 / VOL.156



04



07



08



10



13



14

포커스

04

추석맞이 한우직거래장터 성황리에 마쳐

한눈에 보는 자조금 소식

06

소비자·농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조금 소식

07

- 07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 참가
- 08 '제3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 현장
- 10 'Restaurant & Bar Hong Kong 2018' 박람회 참석
- 11 '2018년 홍콩 유튜브 연계 한국 농식품 온라인 홍보사업' 참여
- 12 추석 한우 선물세트 최대 40% 할인 판매
- 13 자가 인공수정 이론 및 실습교육 실시
- 14 '전국한우경진대회' 미리 보기

미디어 속 한우

16

넉넉한 추석 한우로 풍요롭게



표지 설명

일러스트 사모 작가

가을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린 가을 축제의 장에 우리 한우가 찾아가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케이푸드(K-Food)의 대표주자인 한우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제3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에서도 그 위용을 뽐내며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전파했습니다.

이 땅 위에 자존심 한우, 그 한우를 정성으로 길러낸 한우농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깊어진 가을에, 한우농가 여러분들에게 깊고 풍요로운 축제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18년 10월 11일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라폴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2층 홍보·유통부
 연락처 Tel.02,522,3606 Fax.02,522,4314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645
 기획·디자인 디자인신화 02,324,6852

협회 소식

전국한우협회 창립 제19주년 기념식 성료

18

피플

박충일 세종시청 농업축산과 계장

20

농가를 찾아서

이승덕 온새미로 대표

22

한우 현황

9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24

정보플러스

산지 초지도 파종 후 눌러줘야 잘 자란다

25

알림마당

이달의 한우 행사 소식입니다

26

웹진/비즈링 이벤트

웹진 소개와 경품 / 휴대전화 컬러링 신청

27



18



20



22

한우 비즈링



무료통화연결음



한우자조금에서 비즈링(컬러링)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 사이트 www.hanwooboard.or.kr에 방문하셔서
메인화면 '알림·홍보' ▶ '홍보자료' ▶ '한우송 듣기' ▶ '비즈링 신청'
▶ **신청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듣기 좋고
귀여운
비즈링~
친구·지인들이
좋아해요~

※ 차후 비즈링 해지는 고객센터 1544-320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번호·통신사 변경 시 비즈링이 자동 해지되오니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석맞이 한우직거래장터 성황리에 마쳐

“저렴하고 맛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 명절엔 ‘한우직거래장터’부터 찾아요”

‘2018년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가 방문 고객 약 6000명 · 판매 금액 약 5억 6,000만 원을 기록하며 성료했다.

‘2018년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에는 풍성하고 넉넉한 행복이 가득했다.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열린 직거래장터에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재방문 · 재구매 고객들과 방송을 보고 찾은 신규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직거래장터가 열린 서울 청계광장에는 시중가보다 20%~40%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고기를 믿고 살 수 있다는 신뢰가 팽배했다.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직거래장터 개막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 한우 홍보대사 배우 한혜진 씨,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김태환 대표이사,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 등이 참석해 남북한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한우 맛 지도’를 선보여 그 의미를 한층 더했으며, 관객들의 큰 호응도 이끌어냈다. 이 행사 장면은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 이 직거래장터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개호 장관은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곳에 꼭 오셔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를 먹을 기회를 꼭 잡으시라”며 직거래장터의 의의를 알렸다. 배우 한혜진 씨는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 달라”며 “맛있는 한우 많이 드시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라”고 말했다.

“문자받고 또 왔어요”

개장 첫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제법 내렸는데도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 마련한 직거래장터에는 한우고기를 사려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아주 이른 시간부터 시작됐다.

아침 7시 30분에 직거래장터에 도착했다는 유순이 고객의 대기번호는 34번. 유순이 고객은 “지난번에 늦게 와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기다렸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일찍 왔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은 직거래장터 개장 전 기존 구매 고객에게 MMS를 발송해 재구매·재방문을 유도했는데, 실제로 “문자를 받고 이번에도 찾아왔다”는 고객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한우자조금은 직거래장터를 앞두고 사전 홍보 활동도 활발히 벌였는데, 행사장 인근 거리에 현수막을 배치한 것은 물론 워킹배너를 운영하고 전단도 배포했다. ‘남산 한국의 맛 축제’ 등 한우자조금 소비촉진 행사장에서도 배너를 활용해 직거래장터를 알렸다. 또 파워블로거 10인을 선정해 직거래장터 개장 전·후 포스팅을 유도, 바이럴 효과를 노렸다. 언론, 온라인, 방송 등도 적극 활용했다. 방송 PPL은 신규 고객 유치에 효과가 있었는데, 서울 혜화동에서 아들과 함께 온 한 고객은 “오늘 아침 방송을 보고 ‘저기라면 믿고 한우고기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일간 운영한다기에 느긋하게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저렴하고 맛있고 믿을 수 있으니 직거래장터의 장점으로서는 저렴한 가격이 첫 손에 꼽혔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1등급 이상 한우 등심·안심·채끝 등 구이류를 비롯해 제수용 국거리·불고기·산적거리에 사골까지, 다양한 부위의 한우를 시중 가격 대비 20%~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했다. 1등급 기준 100g당 가격은 등심 6,320원, 안심 8,420원, 채끝 6,410원, 우둔·설도·목심·앞다리 2,590원, 양지 3,800원 등이었다. 한 남성고객은 제수용 한우고기를 양손 가득 사고도 “비가 안 오면 더 많이 살 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부위별로 가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확실히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한우고기 맛에 만족해 또 찾았다”는 고객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서울 자양동에서 온 유영춘 고객은 “다른 데도 한우고기를 팔지만 여기 한우고기는 유난히 더 맛있다”라고 칭찬했다. 지난 설에 산 한우고기 맛이 너무 좋아서 이번엔 친구도 데려왔다는 고객도 있었다. 진짜 한우를 살 수 있다는 신뢰도 주요 구매포인트였다. 한 고객은 “동네 정육점에서 파는 한우가 정말 한우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그런데 여기는 보증수표”라며 믿음을 나타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녹색한우(녹색한우조합), 안동비프(안동봉화축협), 흥성한우(구항농업협동조합)가 참여했다. 직거래장터에서 만난 서영애 고객은 “한우농가 여러분 덕분에 올해 추석에도 이렇게 맛있는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며 한우농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호응 끌어 내

직거래장터에서는 한우 불고기 시식행사, 룰렛게임, 떡메치기, 디지털 캐리커처 그리기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한우 불고기 시식회에 참석한 고객들은 “뒷맛이 고소하다,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다, 맛이 정말 최고다”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우 불고기 15만 원 이상 ‘불고기 양념장’, 등심·안심·채끝 20만 원 이상 ‘한우육포’, 총 30만 원 이상 ‘소떡소떡’ 등의 경품 증정 이벤트도 고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이렇게 한우자조금은 이번 직거래장터에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



2018년 9월은 소비자·농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홍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곳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농축산식품 분야 취창업 희망자들에게 취창업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취창업 희망자를 응원하고자 한우 다트 던지기, 한우 푸드트럭 시식행사 등의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소비촉진

내·외국인 방문자에게 한우의 맛을 알리기 위해 '제3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와 함께했습니다. 한우 푸드트럭을 활용한 한우 불고기 시식회, 한우 다트 던지기, 한우버거 만들기 체험 등의 행사와 이벤트에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PPL

9월의 미디어 속 한우는 풍요로운 추석과 함께했습니다. 추석맞이 한우직거래장터와 대형유통매장 할인행사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PPL이 9월 한 달간 집중됐습니다. SBS<모닝와이드>에서는 직거래장터 개장 당일 아침 생방송으로 직거래장터를 소개해 시청자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SBS<좋은아침>과 SBS<생방송투데이>에서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우의 모든 것을 소개하며 추석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했습니다. KBS2TV<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당뇨에 좋은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SBS<생활경제>·KBS2TV<생생정보>에서는 각각 제주와 장흥의 한우고기를 조명, 지역 한우고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육

'2018 자가 인공수공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한우 번식생리와 인공수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수업부터 실습용 번식 기관과 암소를 활용한 실습교육까지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자가 인공수정이 필수임을 현장 교육 열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대한민국 한우 개량의 현주소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열린 한우경진대회를 찾아갔습니다. 도별 한우경진대회에서는 대한민국 한우 개량의 눈부신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우경진대회는 한우 개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의 장이며, 축산농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초청행사

홍콩aT지사에서 운영하는 '2018년 홍콩 유튜브 연계 한국 농식품 온라인 홍보사업'에 우리 한우가 첫 번째로 참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콩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과의 연계로 한국 농식품을 노출·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홍콩 내 한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홍콩 내 유명 유튜버가 한우농가, 한우공판장, 한우 식당 등을 방문해 한우를 취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10월 9일 M아시아(홍콩)의 '한미각' 프로그램에 방영됐습니다.



박람회

케이푸드(K-Food)를 대표하는 우리 한우가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HKCEC)에서 열린 'Restaurant & Bar Hong Kong 2018'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청신호를 켜졌습니다.



행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한우 소비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할인행사에서는 1등급 한우 등심은 6,720원(100g)에, 불고기와 국거리는 3,180원(100g)에 판매했습니다. 아울러 한우 선물세트 사전주문 신청도 받았습니.

자 조 금 소 식

01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 참가

“청춘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식 행사 등으로 한우 우수성 알려

한우자조금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 분야 취창업을 돕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한국식품마이스터고 등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부터 50~60대의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농축산식품 분야 취창업 희망자들에게 취창업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홍보관에는 한우와 한우자조금 관련 정보를 담은 현수막, 홍보 영상, 한우 사진, 배너 등을 설치, 농림축산식품 분야 취창업 희망자와 박람회 참가 업체는 물론 DDP를 찾은 내·외국인 방문객에게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한우자조금의 역할과 필요성, 한우의 우수성 등을 알렸다. DDP와 동대문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인 만큼 외국인들에게도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한우사랑 장학금 제도와 장학생 모집 정보’를 알리는 배너 앞에는



청년들의 발이 오래 멈춰서기도 했다.

아울러 한우자조금은 농축산식품 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응원하고자 한우 다트 던지기, 한우 푸드트럭 시식행사, 한우 불고기 퀘사디아·소떡소떡 요리 체험 등의 이벤트를 진행,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과 DDP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DDP를 찾은 한 외국인 관광객은 한우 불고기 시식 후 “양념도 맛있고 쫄깃한 식감도 좋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박람회에는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손금주 국회의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등이 참석해 농림축산식품 취창업 희망자들을 응원했다. 한우자조금 홍보관을 찾은 이개호 장관, 손금주 국회의원, 이목희 부위원장 등은 한우 시식회에도 참여, 한우 맛에 대한 평가를 엄지척으로 대신했다. 이개호 장관은 “한우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혼”이라며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도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개호 장관은 “지난여름 폭염에 한우농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면서 “한우 파이팅!”이라며 한우농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자 조 금 소 식

02

‘제3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 현장

서울 중심에서 한우의 맛을 알리다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양념도 입맛에 ‘딱’이에요”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3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이하, 한국의 맛 축제)’가 열렸다. 서울을 대표하는 가을 미식 축제로 자리 잡은 한국의 맛 축제는 ‘한끼’의 홍승일 셰프, ‘미슬토 해녀물회’의 최혜숙 셰프 등 30여 명의 유명 셰프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한국의 맛을 뽐냈다. 이 케이푸드(K-Food) 축제의 현장에 우리 한우가 찾아갔다.

한우자조금은 내·외국인 방문자에게 한우의 맛을 알리고, 한우 소비를 촉진하려고 한국의 맛 축제에 참여했다. 한우 푸드트럭을 활용한 한우 불고기 시식회, 한우 다트 던지기, 한우버거 만들기 체험 등의 행사와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채로운 행사로 관람객과 호흡

“잠시 후 한우 불고기 시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우 불고기 시식회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에, 한우 푸드트럭 앞에는 금세 긴 줄이 생겼다. ‘한우’라는 말에 일단 줄부터 섰다는 관람객도 있었다. 길게 늘어진 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우 불고기 준대요, 한우”라며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시식회 요리는 한우 채끝살 구이와 한우

불고기.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익어 가는 한우 불고기를 보며 시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구멍에선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시 남산골 한옥마을은 외국인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한국의 맛 축제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한우 불고기 시식 행사에 참석한 에스토니아 사람 샤샤 씨는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양념도 입맛에 아주 잘 맞는다”라며 한우 불고기 맛에 매우 흡족한 표정을 나타냈다.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와의 인연으로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는 샤샤 씨는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려고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았는데, 한식 특히 한우를 맛보는 경험도 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우 푸드트럭 옆에선 ‘한우버거 체험’ 행사도 열렸다. 젊은 연인부터 남성 2인조와 중년 부부까지, 남녀노소 누구랄 것도 없이 한우버거 체험 행사에 큰 흥미를 보였다. 어린 손자와 함께 체험에 참여한 한 할머니는 “손자 덕분에 버거라는 걸 처음 만들어 봤다”며 흐뭇해했다. 참가자들이 만든 버거는 그 특징도 천차만별. 빵에 소스를 듬뿍 바른 버거, 한우 패티를 아주 두껍게 만든 버거 등 다양한 맛과 모양의 한우버거가 탄생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한국문화와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우고기로 만든 한우 불고기, 한우 산적, 한우 궁중찜 등의 명절 음식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맛은 물론이고 그 아름다운 모양과 색감에 감탄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았다.



“한우를 더욱 잘 알게 됐어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한우 다트 던지기. 한 참가자가 안심, 갈비, 등심 등 한우의 각 부위가 표시된 다트판 앞에서 원하는 부위를 말하고 다트를 던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원하는 한우 부위를 명중시킨 참가자에게는 한우 육포를 증정했다. 좋아하는 한우 부위에 명중시킨 참가자를 향한 축하의 함성이 다른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친구와

다트던지기 이벤트에 참여한 이성우 씨는 “네 개를 던졌는데 하나도 맞추지 못해 너무 아쉽다”면서도 “그래도 덕분에 한우의 다양한 부위에 대해 잘 알고 간다”며 뿌듯해했다.

이날 한우 부스에서는 한우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소고기 이력제, 등급제, 진짜 한우를 선별하는 법 등 한우와 관련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 내·외국인들에게 우리 한우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아울러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를 알리는 배너를 설치, 추석 한우고기 소비촉진에도 기여했다. 이 배너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람객 특히 주부들의 발걸음을 잡았는데, 종일 직거래장터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맛 축제 기간에는 유치원 등에서 가을 소풍을 나온 아이가 많았다. 한우 캐릭터, 한우 스티커 등은 어린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는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한우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선물했다.



케이푸드 축제에 어찌 한우가 빠지겠~소

4일간 이어진 한국의 맛 축제에는 총 7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 중 외국인 관광객도 7000여 명에 달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한우자조금 부스를 찾은 최서연 씨는 “한국의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에 한우가 빠지면 되겠느냐”며 “우리 한우는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음식 재료”라며 한우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이어서 최서연 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한우를 만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케이푸드(K-Food)를 대표하는 최고의 맛 잔치가 열린 이번 축제는 한우의 우수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한우의 위상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우자조금 부스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박완주 국회의원, 조웅천 국회의원,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등이 방문,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데 일조했다. 🐮



자 조 금 소 식

03

'Restaurant & Bar Hong Kong 2018' 박람회 참석

아시아태평양 최고 B2B 행사

현지 바이어 대상 한우 인지도 제고



한우자조금이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HKCEC)에서 열린 'Restaurant & Bar Hong Kong 2018(이하, RBHK)' 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청신호를 켜다.

올해로 15회째인 RBHK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식당 및 바 박람회로, 매해 3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300개 이상의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B2B 행사이다.

박람회에서 한우자조금은 홍콩 유명 셰프들이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 마스터 클래스(Chef Masterclass)'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선보인 한우 등심을 활용한 홍콩식 요리는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얻었다. 홍콩 침사추이 Wing's Private Kitchen의 유명 셰프 Michael Chung은 이 클래스에서 한우 큐브 스테이크 등을 선보였고, 차와 잘 어울리는 한우메뉴를 소개하는 'Tea Pairing' 코너에서는 유명 차 소믈리에가 20년간 발효 숙성한 보이차와 잘 어울리는 메뉴로 한우 훈제 등심 롤을 내놓았다.

한우자조금은 박람회 기간에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한우 시식회도 열었다. 시식에 참여한 바이어들은 "한우는 풍미가 좋고 육즙이 많다" "다른 나라 소고기와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한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모든 관람객에게 경품으로 한우 캐릭터 저금통과 한우

육포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우리 한우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홍콩시장의 식품 동향을 파악하고 홍콩 현지의 한우 마케팅 현황과 바이어들의 관심도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다"며 "현지 바이어들에게 한우를 직접 소개함으로써 한우의 인지도가 상승한 것은 물론 앞으로 한우의 구매 확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경천 위원장은 "앞으로 현지 수입 바이어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보다 강화해 홍콩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전체로의 수출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오는 10월 홍콩 현지에서 한우 페스티벌 개최, 케이푸드(K-Food) 페어 참가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자 조 금 소 식

04

‘2018년 홍콩 유튜버 연계 한국 농식품 온라인 홍보사업’ 참여

홍콩 인기 유튜버의 ‘한우 대결기’

홍콩 젊은층의 한우에 대한 관심과 소비 유도



한우자조금이 홍콩aT지사에서 주최하는 ‘2018년 홍콩 유튜버 연계 한국 농식품 온라인 홍보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홍콩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과의 연계로 한국 농식품을 노출·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즉, 홍콩 내 유명 유튜버 두 명이 개인 온라인방송에 대결

구도 형식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해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업로드, 팔로워들에게 한국 농식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 첫 번째 한국 농식품이 바로 ‘한우’. 해외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우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수출을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홍콩 젊은 층에 한우의 장점을 알려 한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홍콩 내 한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홍콩 내 유명 유튜버인 Sue Chang과 Ding Ding이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Sue Chang은 유명 한국계 홍콩인 유튜버로, 유튜브는 물론 기타 소셜미디어에서도 영향력이 높다. Ding Ding은 구매력 높은 20~30대 전문직 여성을 주 팔로워 층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들의 첫 일정은 경기도 고양의 한우농가 방문. 유튜버들은 한우농장을 직접 둘러보고 또 한우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한우의 사육환경, 사양관리 방법 등에 대한 촬영을 진행, 한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길러지고 있는지 등을 화면에 담았다. 또한, 한우농가 농장주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우의 우수성, 한우의 특별한 맛 등 한우의 특별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튜버들은 “한우농가들이 얼마나 열정과 노력으로 한우농장을 일궈가는지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한우가 ‘고급육’으로 평가받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충분히 느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방문지는 농협 음성 축산물공판장. 이곳에서 직접 육가공 현장을 살펴보고, 한우가 얼마나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가공·유통되고 있는지를 촬영했다. 촬영팀은 한국에서는 축산물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축산물 이력제 DNA동일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한우의 품질 관리를 위해 ‘소고기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화면에 담으며,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유튜버는 “한우고기가 철저한 시스템 아래 가공·유통되는 안전한 음식 재료라는 신뢰감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한우 관련 퀴즈 대회를 진행, 한우에 대한 상식도 키웠다.

마지막으로 ‘대구축협 동대구 IC점’에서 한우를 시식하는 장면을 담았다. 유튜버들은 한우의 육향에 먼저 감탄하고, 한우의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에 다시 감동했다. 시식 장면에서는 앞서 진행한 한우 퀴즈 대회의 승자에게만 한우고기를 제공하고 패자에게는 간단한 음식만 제공했는데, 이렇게 콘텐츠에 흥미 요소를 더해 홍콩 시청자들이 한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데 일조했다.

이번 취재기는 유튜버의 SNS는 물론 10월 9일 tvN아시아(홍콩)의 ‘한미각’ 프로그램에도 방영, 홍콩인들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 



자 조 금 소 식

05

추석 한우 선물세트 최대 40% 할인 판매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한우 소비확대에 기여



2호'(9만 5000원)가 바로 그것이다. 한우 선물세트는 시중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에 추석 선물세트를 마련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명절 선물용으로 한우 선물세트가 합리적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도 됐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농협계통매장 250개 점, 홈플러스 141개 점, 롯데슈퍼 462개 점,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등 총 863개 점에서 2등급 이상 한우고기를 시중가 대비 15%~2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한우 할인행사도 전국적으로 열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한우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라는 마음을 담아 할인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할인행사에서는 1등급 한우 등심은 6,720원(100g)에, 불고기와 국거리 3,180원(100g)에 판매했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농가가 십시일반 모아 조성한 한우자조금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해 한우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우자조금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나흘간 한우 선물세트 사전주문 신청 행사를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선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번 추석 한우 선물세트는 10만 원 이하 상품, 총 2종을 구성해 판매했다. 1+등급 불고기 1kg · 국거리 500g으로 구성된 '한우 실속세트 1호'(5만 원)와 1+등급 등심 1kg · 국거리 500g으로 구성된 '한우 실속세트



자 조 금 소 식

06

자가 인공수정 이론 및 실습교육 실시

“자가 인공수정 필수”

경험이 중요한 기술 ‘실습교육 더 많아져야’



기관과 암소를 활용한 실습교육 등이 진행됐다. 2016년에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기도 이천의 인혜숙 씨는 “우리 농장에서 인공수정을 직접 하는데 임신 성공률이 높지는 않다”며 “경험이 필요한 기술인 만큼 실습 위주의 교육이 더 자주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가 주관한 ‘2018 자가 인공수정 이론 및 실습교육’이 지난 9월 5일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울산, 강화, 봉화, 의성, 전남, 장흥 등 전국 각지의 한우농가 운영자·후계농가·예비운영자 등이 참석했다.

한우연구소 한만희 소장은 “교육을 위해 멀리서 왔을 때는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열정으로 한우산업의 파고를 넘겨보자”라며 교육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20~30대의 젊은 후계농들도 적지 않게 참석했다.

자가 인공수정 교육의 목적은 △한우 사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인공수정 등의 실용기술 확산 △한우번식농가의 생산비 절감 △적기 수정을 위한 자가 인공수정 기술 습득으로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 등이다. 교육은 한우

번식생리와 인공수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수업과 함께 질소 통에서 정액을 꺼내는 법, 인공수정도구 다루는 법, 수정 적기를 찾는 법, 실습용 번식

인공수정 실습을 해 봤다는 육종농가 이정숙 씨는 “신기하고 놀랍고 떨리고 걱정된다”며 “열심히 복습하겠다”는 열정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날 교육 참석자들의 이구동성은 “자가 인공수정은 필수”라는 것이다. 인천 강화에서 온 현진철(42)·유두선(37) 씨는 “인공수정사를 불렀는데, 적기가 지났거나 아직 안돼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다”는 경험담을 털어놨다. 구제역으로 이동제한에 걸려서, 인공수정사가 너무 바빠서 등으로 적기를 놓친 경험자도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가 인공수정 교육에 참석한 강원도 평창의 임봉수 씨는 “오늘 교육을 받고 가면 바로 실전에 적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교육으로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자 조 금 소 식

‘전국한우경진대회’ 미리 보기

07

대한민국 한우 개량 성과 눈부셨다



참가자 모두가 심사자

도별 대회에서는 각 도시·군에서 출품한 한우 중에서 △암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1부·2부·3부) 총 5개 부문에 각각 한우 3두씩을 선발했으며, 이 외에 고급육 부문, 초음파육질진단 부문, 우수 시·군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대회 수상 한우농가는 전국대회 자동 출전권을 획득했다.

평가는 한우 외모심사 기준에 따라 개체별 비교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평가 기준에 외모심사 외에 유전능력, 등지방두께(초음파진단) 등도 포함됐다.

심사는 농협과 한국종축개량양협회 소속 전문가 4~5명이 진행, 1차 심사에서 도체 측정으로 각 부문 7~8두를 선발하고, 2차에서 5두, 최종 3차에서 3두를 선발하는 등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경진대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은 물론 농가와 관람객 등도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진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우경진대회 심사 과정을 보면 ‘어떤 한우가 앞으로 키가 많이 자랄 것인지, 개량이 잘된 한우의 형질은 어떤지, 왜 이 한우가 저 한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등 한우 개량 정보가 심사

대한민국 한우 개량의 현주소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한우자조금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한우경진대회를 찾아갔다. 도별 한우경진대회 장에는 한우 개량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눈부신 한우 개량의 성과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우리 한우의 개량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렇게 우수한 한우가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한우자조금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회 미리 보기

지난 9월 4일 경상남도와 충청북도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5일 전라남도 대회까지, 지자체별 한우경진대회가 일제히 열렸다. 도별 대회는 전국 대회 ‘축소판’으로, 전국 대회의 수준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올해 도별 대회에는 전년보다 우수한 한우가 많이 출품돼 전국 대회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올해 전국에서 열린 지자체별 한우경진대회가 예년과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도별 한우경진대회가 ‘지역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지자체 대회에서는 축산인 한마음대회, 소비촉진 행사, 관람객 참여 행사, 축산기자재 전, 축하 공연 등의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축산인들은 물론 일반 지역민도 많이 참가했다. 한 대회장에서 만난 참석자는 “한우경진대회가 한우농가와 도민들의 잔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과정에서 심사자와 참석자들 사이에 공유됐다. 심사장에는 심사위원 못지않은 식견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 대회에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시라”는 권유를 받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러한 정보 교류는 한우농가의 한우 개량 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한 참석자는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우의 우수한 형질은 더욱 높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우수한 한우를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우 개량 성과 확인하는 자리

전국의 한우경진대회 장에서는 한우 개량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관람객은 “사람으로 치면 미스코리아 아니냐”며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균형도 잘 잡힌 것이 우리 어릴 때 봤던 소하고는 비교가 안된다”라며 감회에 젖었다. 도 대회에 한우를 출품한 한우농가 대표는 “그동안 다양한 대회에 나갔다”면서 “그런데 평소와 달리 오늘 대회장에선 ‘한우가 정말 좋아졌다’는 느낌을 단번에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도 대회 심사를 진행한 한 심사위원은 “이전보다 체형이 굉장히 발달하고 번식 형질인 후부도 굉장히 많이 개량되는 등 한우 개량 성과를 볼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달랐다”면서 “개량이 너무 잘돼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국 대회(10월 11일~10월 12일)에서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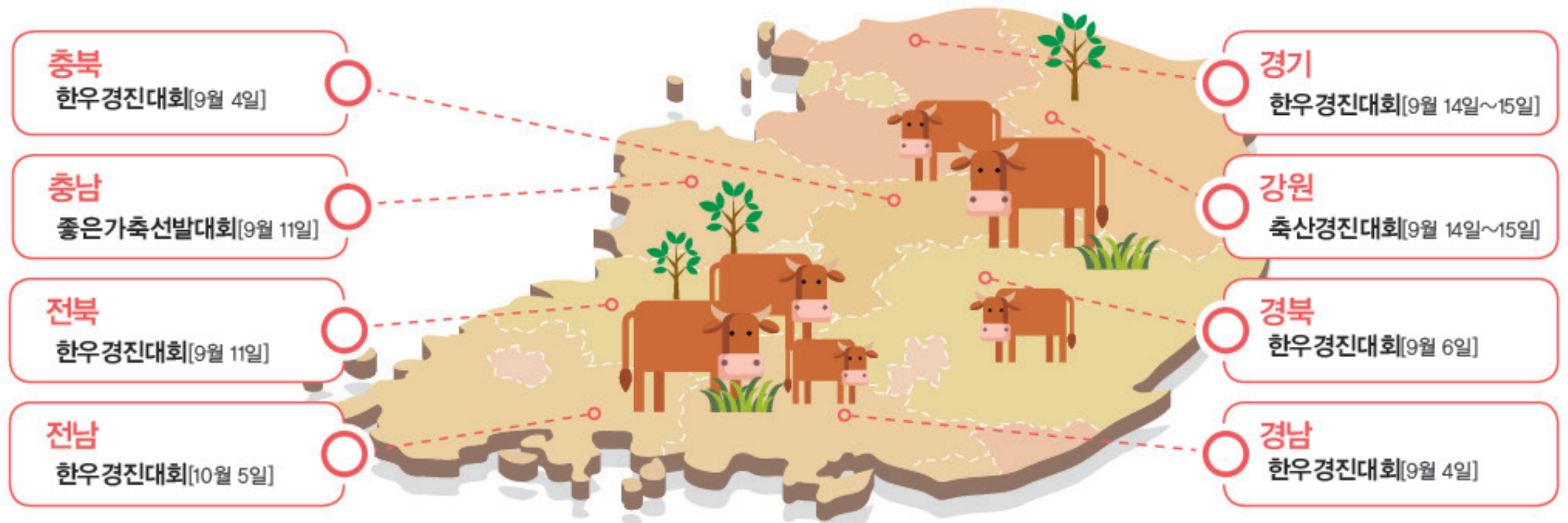
이렇게 도별 대회에서 선발된 우수한 한우들이 자웅을 겨루는 ‘2018년 전국한우경진대회’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하는 ‘2018년 전국한우경진대회’가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농협 안성팜랜드 아그리움에서 ‘유전능력평가로 한우 개량을’이란 주제로 열린다.

전국한우경진대회는 1969년 한우챔피언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 18회까지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2015년 전국한우경진대회’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회란 점에서 또 1969년 개최 이후 50주년이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아울러 올해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도 본 행사 외에 △한우 개량 활성화 심포지엄 △경매



행사 △브랜드 전시관, 한우고기 할인판매행사, 숯불구이행사 등 한우 소비촉진 행사 △특수가축 전시 및 사진 찍기, 코푸레 만들기 등 체험학습관 운영 △코스모스 행사와 연계한 소비자 참여 행사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한우 개량사, 한우산업 발전상, 한우 브랜드 현황 등 한우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전시하는 한우 홍보관 △한우 ICT 접목 전시관 △축산기자재 전시관 등도 운영한다. 이는 한우경진대회가 단순히 축산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넉넉한 추석 한우로 풍요롭게



9월의 미디어 속 한우는 풍요로운 추석과 함께했다.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 개장과 대형유통업체 할인판매 소식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TV 속 한우의 모든 콘텐츠에 정보가 자막고지·음성고지 됐다. 추석의 행복인 한우는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점은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의 관심을 자극했다. 보름달처럼 넉넉한 추석에 풍요로움을 더한 한우의 TV 속 활약상을 따라가 보자.

추석 물가 낮춤! 한우직거래장터 할인판매행사 집중조명

한우자조금에서 진행한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와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PPL이 9월 한 달간 집중됐다. 실제로 '방송'을 보고 찾아왔다는 고객을 한우 직거래장터에서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SBS<모닝와이드>

9월 20일 방송



이날 방송은 한우 직거래장터가 열리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됐다. 직거래장터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방송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장으로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닥터세프 황인철 씨가 출연해 시식행사 장면을 연출, 한우는 필수 아미노산과 올레인산이 풍부하다는 멘트로 한우의 우수성도 부각했다. 한우고기를 20~4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등의 소개 멘트로 직거래장터의 장점도 충분히 어필했다.

KBS1TV<6시내고향>

9월 17일 방송



방송에서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팁이 소개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형유통업체에서의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소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진행자의 멘트와 자막을 동시에 내보내 시청자들이 보다 잘 인지하도록 신경 썼다.

SBS<두시탈출컬투쇼>

9월 18일 방송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는 <두시탈출컬투쇼>에서 한우 직거래장터를 소개, 큰 홍보 효과를 거뒀다. 이날 DJ멘트에서는 '직거래장터에서 굉장히 질 좋은 한우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을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강조하며 직거래장터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방청객들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불고기가 증정했는데, DJ인 개그맨 김태균 씨가 직접 선물세트를 들어 보여주는 장면은 자연스럽게 한우고기 홍보로 연결됐다.

당뇨에 도움되는 한우레시피

불규칙한 생활과 잘못된 식생활로 생기는 성인병, 그중에서도 당뇨에 도움이 되는 한우레시피를 소개해 한우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 KBS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9월 10일 방송

당뇨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과 한우 육포를 간식으로 먹는 주부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양질의 단백질인 한우는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한우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먹느냐이다'란 닥터세프 황인철 씨의 멘트는 당뇨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를 TV 앞으로 불러 모았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한우 레시피로 한우 스테이크 참나물 보리 샐러드와 한우 돌돌말이 채소 쌈을 소개, 시청자들의 관심을 자극했다. '양질의 단백질인 한우와 채소로 건강하게 당뇨 관리하세요.'

추석에 만난 한우! 추석의 품격 한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우의 모든 것이 전파를 타며, 추석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한우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또 안전한 먹을거리란 점 등을 부각,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일조했다.

SBS<좋은아침>

9월 17일 방송



추석 선물로도 제격인 한우를 잘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며, 추석 선물로 고민하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소고기를 안심하고 사는 방법으로 '소고기이력제'를 소개, 한우가 안전한 먹을거리임을 어필했다. 추석을 맞아 한우 요리법도 전파를 탔는데, 이날 소개한 '만능한우반죽'은 방송 후에도 시청자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동의보감과 한우자조금 논문을 활용한 멘트는, 한우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SBS<생방송투데이>

9월 21일 방송



8,000평의 초지에서 방목된 한우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또한, 무항생제 인증, 지하청정수 인증 등을 받은 농장에서 자라는 한우는 건강한 먹을거리란 점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한우를 이용한 명절 초간단 요리로 한우채소 말이와 한우갈비찜을 소개했다. 갈비찜에 사태를 함께 넣어 쫄깃한 식감을 높인 레시피는 한우의 모든 부위가 맛있다는 점을 일깨웠다.

TV조선<아내의맛>

9월 11일 방송



출연진들이 가문의 영광을 걸고 한우요리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가족들과 함께 요리를 만드는 출연진들의 모습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엔 역시 한우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해산물 한우 불고기, 양지머리 한우 뚝국, 한우 자라 볶음 등을 선보였는데, 한우의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우수상품으로 한우가 증명됐다.

전국 한우 맛 투어

● SBS<생활경제>



한우는 지역에 따라 그 맛과 멋이 다르다. 지역별로 다른 한우를 조명한 방송은 지역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충분했다.

9월 10일 방송

흑돼지, 해산물로 유명한 제주도의 또 다른 맛으로 '한우'를 소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방송에서는 제주의 청정 환경에서 방목으로 자라는 제주 한우의 우수성을 부각하며 제주 한우에 대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제주산 한우 물회, 전복 갈비탕(갈비찜) 등 제주 한우고기 레시피는 제주도 여행길 미식 코스로 넣기에 손색이 없었다.

● KBS2TV<생생정보>



9월 19일 방송

탐진강이 흐르는 장흥. 국내 최초의 주말 장터인 장흥 토요일시장의 신명나는 모습이 방송됐다. 장흥은 표고버섯도 유명하지만 장흥에 간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한우 생고기. 당일 도축한 한우고기로 만든 신선한 육회는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미식이라는 점은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하며, 장흥 한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장흥은 전국 한우농가 중 생산지 소비율이 가장 높고, 생산지에서 바로 공급하는 유통구조로 한우 가격이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다는 정보는 시청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꿀팁이었다.

10월 한우자조금 TV 광고 스케줄

채널	편성명	시작시간	요일
	일일드라마 前	20:25	화·수·목 (10일·17일·24일·31일)
KBS1	6시내고향 後	19:00	월·화·수·목·금 (2일·4일·9일·16일·23일·25일)
KBS 뉴스 前		12:00	월·화 (1일·8일·15일)

10월 한우자조금 라디오 광고 스케줄

채널	편성명	시작시간	요일
CBS FM (표준)	김현정의 뉴스쇼 後	08:34	월~금 (총 23회)
CBS FM (음악)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15:58	월·화·수·금·토·일 (10월 1일~10월 15일·총 15회)

*위 내용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창립 제19주년 기념식 성료

협 회 소 식

01

한우가격 안정화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결의대회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9월 14일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내외빈을 비롯한 전국한우협회 회원 농가 9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한우협회 창립 제1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선제적 수급조절 위한 정부 승인 촉구
본격적인 개회에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농가의 대정부 건의와 우리의 결의'란 제목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채택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한우산업은 가격안정이 우선이다. 과거 소 값 폭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한우생산비의 50%가 넘는 사료비의 실질적인 절감방안을 제시하라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특별법을 제정하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우리 한우농가들은 스스로

선제적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한다
△일반사료보다 최대 20% 저렴한 협회 OEM사료 생산 공급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는 한우가 민족산업이라는 자긍심으로 국민건강에 유익한 한우 사육에 전념하고, 사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한다' 등 한우농가 스스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민족 산업인 우리 한우를 지키려면 10만 한우농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우농가들이 함께 만든 전국한우협회가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자리가 한우농가들이 한 번





더 뭉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홍길 회장은 "일본은 송아지 안정제, 큰 소 가격 안정제 등 정부가 이중삼중으로 농가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지난 7월 기준 한우가 벌써 300만 두 가까이까지 늘어남에 따라 사육두수 조절과 고급육 생산이 가능한 미경산 한우 비육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한우농가들이 스스로 마련한 자조금을 사용하려 해도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주문했다.

“금지 갖고 축산업 종사”

전국한우협회 창립 제19주년 기념식에는 주요 내외빈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축산이 환경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축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농촌경제를 책임진다는

금지과 자긍심을 가지고 축산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우리 한우산업은 구제역, 가격 하락, 청탁금지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돼 왔다”며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와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도 한우산업이 대내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발전해 나가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창립 제19주년 기념식에서는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관계자와 지부, 지자체와 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 그동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우나눔과 업무협약식도 진행했다. 

〈창립 19주년 기념식 수상 내역〉

상	소속
장관상	경기 용인 신동규 지부장
	강원 영월 이명수 부지회장
	충남 홍성 이지훈 지부장
	전북 김제 정기섭 지부장
	전남 화순 정삼차 지부장
	경북 김천 김홍수 지부장
	경북 영천 최종효 지부장
	경남 사천 이상훈 지부장
우수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경기 용인시청
	전북 무주군청
	경북 봉화군청
우수공무원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채연석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이상수
	천안시청 축산과 박성필
	전북도청 축산과 임정수
	나주시청 축산과 형남열
	경북도청 축산정책과 이승은
	경산시청 친환경축산과 이종화
	경남도청 농정국 동물방역과 전소분
	제주도청 축산과 김현진
우수지부	경기 남양주시지부
	강원 철원군지부
	충북 괴산군지부
	충남 논산시지부
	전북 군산시지부
	전남 담양군지부
	경북 구미시지부
	경북 상주시지부
	경남 함양군지부
	서울산지부
우수회원	경기 가평 이준기 지부장
	강원 춘천 우문수 지부장
	충북 영동 박광춘 사무국장
	충남 아산 자유범 부지부장
	전북 고창 이경호 지부장
	전남 구례 소재덕 지부장
	경북 포항 배재영
	경북 예천 우병국 지부장
	경남 밀양 김상기 사무국장
	서울산 김수만 지회이사
	제주도지회 고성민 부회장
감사패	농업회사법인 품(주)
	태우그린푸드
	팜스토리한농
	초원육가공
	동양플러스

박충일 세종시청 농업축산과 계장

TMR 공급 · 양질의 조사료 생산 · 한우 개량으로 세종시 고급육 생산비율 상승

세종특별자치시는 청주(동쪽), 공주(서쪽), 대전(남쪽), 천안(북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 여건은 세종시 한우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고급육 생산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TMR 공급 · 양질의 조사료 생산 · 한우 개량 등의 사업에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이다. 특히 세종시 한우농가의 높은 교육 의식 수준이 한몫했다.



Q 세종시에서 한우농가를 위해 운영하는 정책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A 세종시에서는 △한우 개량 사업 1억 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 6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스탠존, 환풍기, 자동급수통, 진동브러시, 발정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미생물제제, 수분조절제 공급에 1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 한우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세종시가 전국 제1의 고급육 생산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세종시 한우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A 세종시는 인접 시 · 군과 비교했을 때 한우농가 수(약 700호)와 사육두수(약 2만 5,000두)가 많습니다. 아울러 대전, 청주, 천안 등 인근에 대형 소고기 소비시장이 발달해 있고, 무엇보다 고급육 생산비율이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 세종시 한우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세종시에서는 해썹(HACCP), 무항생제 등의 인증을 오래전부터 축산농가에 도입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농가 23호가 해썹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시 · 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Q 세종시에서 고급육 생산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소는 반추동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우에게는 일반

사료보다는 조사료가 좋습니다. 소의 1위(胃)에는 수백조의 미생물이 있는데, 일반 사료는 산성이라 이 미생물 활성화가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종시의 TMR 급여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TMR은 일반 사료와 달리 1위(胃)의 미생물 활동을 돕습니다. 세종시는 2003년 지역 특화사업(국비사업)으로 자가 TMR 배합기 40대를 한우농가에 공급했고, 이것이 세종시의 높은 고급육 생산비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세종시에서는 ‘한우명품화사업’ 일환으로 한우 전용 ‘TMR공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그렇습니다. 2014년에 ‘명품한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세종시 연서면 부동리에 TMR배합사료공장(5,234㎡)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TMR배합사료 6종을 연간 1만 5,000톤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TMR을 공장에서 만드는 것의 장점은 균일한 품질의 TMR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류비 등이 더 들어가므로 자가 배합 TMR보다 단가는 높습니다. 하지만 한우농가에서 자가 배합으로 필요한 양의 TMR을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우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 전용 TMR공장에서 생산한 TMR은 생균제를 이용한 발효사료로 기호성이 좋고, 출하 체중과 육질개선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 세종시에서는 조사료 생산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소는 반추동물이므로, 무엇보다 조사료가 중요합니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조사료 생산·운반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세종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2년부터 한우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90% 보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종시의 옥수수 재배 면적이 그 전보다 약 5배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는 물론 고급육 생산과 번식우 기반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Q 세종시 한우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A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공부와 소득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관행적인 사육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해 한우 개량과 한우 고급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축산 관련 일을 시작할 때보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우산업 환경 역시 달라졌습니다. 영세 농가·겸업 농가가 많았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한우농가의 전업화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한우농장에 집중하지 않고 또 공부하지 않는다면 한우농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한우농가 대상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심포지엄 등 한우농가들이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세종시 한우농가의 교육 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우농가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우농가의 높은 교육 수준은 앞으로 세종시 한우가 비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Q 2019년 세종시에서 한우농가를 위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A 현재 세종시에서는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개량 사업에도 약 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비, 선형심사비,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체중도 많이 나오고 고급육 생산비율도 높은 한우 개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한우 개량 사업 투자 성과는 어떤가요?) 세종시 한우의 출하 체중과 고급육 생산비율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우 개량 사업으로 한우 개량에 대한 농가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처음 도입 때와 달리 지금은 등록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농가에서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앞으로도 한우 개량 등에 힘써, 세종시 한우농가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승덕 온새미로 대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한우 키워내겠다”

충남 서천의 ‘온새미로’ 한우농장은 어느덧 ‘이립(而立)’이 됐다. 지난 30년간 직접 부딪쳐 실행하며 앞선 길을 선택해 온 이승덕 온새미로 대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0년간 꾸준한 노력으로 축산인의 길을 걸어왔고, 노력이 가장 좋은 방편임을 스스로 증명해왔다. 물론 이 보람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앞으로도 이 대표는 온새미로 노력하며 축산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우농장은 생활의 방편이었다

약 30년 전, 이승덕 온새미로 대표가 20대에 한우농장을 시작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깊었다. “예전부터 촌에서는 소를 키우는 집은 생활 형편이 괜찮았고, 자녀 학비 마련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농협)에 다니면서 한우농장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대표는 이것을 단순히 생계의 문제로 남기지 않고, 평생의 업으로 키워냈다. 처음에는 집 앞에 작은 축사를 지어 촌계(村契)로 마련한 자금으로 한우 5두를 들였다. 그 후 온새미로는 10두, 60두로 사육 규모가 늘었고, 마침내 약 18년 전 580평의 번듯한 축사도 세웠다. 그 후에도 한우 사육두수는 80두에서 지금 약 200두로 늘었다. 2년 전에는 두 번째 축사도 지었다. 세 번째 축사도 계획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큰 힘이 됐다. 20대의 젊은 새댁은 한우농장을 하겠다는 이 대표를 기꺼이 격려했고, 한우농장도 함께 일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온새미로가 성장일로에 있을 수 있었던 데는 이 대표의 유별난 동물 사랑과 이에 기초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사료값 파동 등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이 대표는 회사 퇴근 후에 방앗간 등에서 밤새워 일해 농장 운영비를 마련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농장을 지켜냈다. 한우농장에 대한 관심의 끈을 늦추는 법도 없었다. 이 대표는 아침 먹기 전에 오전 발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논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축사를 둘러본다.

새벽 6시만 되면 한우농장을 향하는 좋은 습관은 벌써 30년째 이어지고 있다. “고요한 새벽 축사에 가는 30분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온새미로가 내일 걸어야 할 길에 대한 구상이 이뤄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온새미로가 다른 한우농장보다 먼저 앞선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매일의 30분이 30년간 이어진 결과이다.

온새미로 ‘깨끗한농장’

인터뷰가 진행되기 얼마 전 온새미로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 아직 농장에 걸리지 않은 새 인증패가 취재팀을 맞았다.

온새미로는 다른 농장보다 일찍 해썹(HACCP)과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 “해썹과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면, 의무감으로라도 농장 청소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것이 습관이 돼, 농장 청소는 이 대표 부부의 중요한 일과가 됐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깨끗한 농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해썹과 무항생제 인증은 모두 기록관리이고 의약품 관리인데, 이것은 농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해썹과 무항생제 인증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겠다는 축산인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한우가 행복해야 우리 농장도 행복하고 그래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치며 온새미로 한우 개량

“다음 달(10월) 전국 대회에 나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대표와의 인터뷰 전날, 충남 서천군에서는 ‘충남 좋은 가축 선발 및 고급육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이 대표는 경산우1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한우 개량에 힘써온 이 대표는 지금 축산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고, 올해 가을걷이도 이렇게 풍성했다.

3년 전까지는 농가에도 송아지를 분양했는데, 온새미로의 송아지를 분양받으려면 줄을 서야 했다고 한다. 그 비결은 꾸준한 실행. “한우농장은 머리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접 부딪치며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한우 개량을 위해 이 대표가 먼저 주목한 것은 ‘조사료’였다. “소는

원래 풀을 먹는 동물이니까, 좋은 조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 대표는 2012년 ‘전국사일리지품질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조사료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조사료 파종 시기, 거름 시기, 베는 시기, 배수법 등을 체득할 수 있었다.

송아지가 유전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려면 개월령마다 조사료와 사료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그 체계를 마련한 것도, 육성우를 위한 자가 TMR 포물러를 완성한 것도, 5m×10m 우방에는 한우 4두를 키워야 도체중이 균일하게 나온다는 것도, 모두 이 대표 경험의 소산이다. 음수통을 하루에 두 번 청소하는 것은 깨끗한 물이 한우 등급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이렇게 좋은 조사료와 깨끗한 물을 먹고 스트레스 없는 공간에서 자란 한우는 확실히 수태율이 높고, 몸집도 크고 등급도 좋게 나오고 있다. 인터뷰 당일 이 대표는 전문가로부터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한우를 자랑했다. 아울러 연이어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도 소개했다. 이 대표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한우, 즉 도체중도 많이 나가고 등급도 잘 받는 한우를 키워내는 것이다. “150두로 450두의 소득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반드시 이 목표에도 노력하며 도달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 변함없이. 🌾



9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9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9월 1일~9월 21일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대비(%)		
					8월(A)	9월(B)	8월(C)	9월(D)	C/A	D/B	
도축두수(두)		883,569	737,474	742,536	65,593	71,915	64,990	75,983	△0.9	5.7	
경매두수(두)		469,935	395,253	401,591	37,140	36,783	35,757	38,434	△3.7	4.5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6,284	18,116	16,719	17,090	17,420	18,096	18,270	5.9	4.9	
	거세우	16,855	18,941	17,710	18,342	18,542	19,181	19,345	4.6	4.3	
	비거세우	13,150	15,263	12,108	11,931	12,402	12,835	13,224	7.6	6.6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 원/두)	암소	5,148	5,809	5,404	5,436	5,399	5,646	5,619	3.9	4.1	
	송아지	암	2,374	2,902	2,919	3,022	3,015	3,132	3,195	3.6	6.0
		수	2,925	3,583	3,572	3,828	3,856	4,017	4,168	4.9	8.1
불고기(1등급/kg)		37,397	45,755	46,219	46,380	46,672	43,046	43,876	△7.2	△6.0	
등심(1등급/kg)		69,924	78,683	79,663	79,810	82,041	79,653	81,692	△0.2	△0.4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 제외 가격

9월 한우육질 등급별 도매가격				
*9월 1일~9월 21일 기준				
등급	거세	암소	수소	평균
1++	21,224	22,862	-	21,429
1+	19,843	20,496	20,733	19,977
1	18,581	18,746	18,304	18,652
2	14,031	15,036	15,789	14,618
3	10,120	10,112	10,996	10,210

*단위: 원/kg

산지 초지도 파종 후 눌러줘야 잘 자란다

‘보리밭기’처럼 산지를 초지로 조성한 곳에도 풀씨를 뿌린 뒤 ‘눌러주기’가 중요하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산지 초지 씨 뿌림 시기를 맞아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가축 방목으로 복토와 진압 효과 동시에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같은 목초의 풀씨는 일반 사료 작물보다 종자가 작아 어린 시기에 느리게 자란다. 또한, 초지는 여러 풀이 경쟁하며 자라기 때문에 풀씨 파종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종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풀씨를 막 파종한 새 초지나 기존 초지에 보충하려고 씨를 뿌린 초지에는 가축을 방목해 땅을 눌러주는 것이 좋다.

가축을 방목하는 방법은 대상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소는 1헥타르당 15두~20두를 3일 정도 방목하는 것이 알맞다. 이러면 가축

의 발굽이 흙을 덮

어주고 단단하게 눌러줘 종자가 땅에 잘 밀

착하고, 잡초와 잡관목류가 자라는 것을 억누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지를 밟아주는 시점이다. 목초 풀씨가 발아해서 나오기 전, 즉 파종 후 7일 이내에 방목해서 어린 목초가 밟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렇게 산지에 종자를 곱뿌린 뒤, 가축을 방목시켜 종자와 비료가 흙 속에 묻히도록 해 복토와 진압의 효과를 동시에 얻으면 곱뿌림 방법만으로 목초를 파종한 것보다 효과가 좋은데, 50% 정도 초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외에 산지 초지를 잘 조성하기 위해 알아둘 것은 풀씨가 땅에 잘 붙지 않아 초지가 부실한 곳은 반드시 이듬해 3월께 추가 파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하거나 잡관목이 많은 곳은 ‘점진적 초지 조성법’도 고려할 만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정종성 농업연구사는 “산지 초지 조성에서 풀씨를 제때 파종하는 것만큼이나 가축 방목을 활용한 눌러주기로 초지의 파종 효과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알림광장

이달의 한우 행사 소식입니다
www.hanwooboard.or.kr

대한민국이한우먹는날

행사주최 전국한우협회
행사일자 10월 30일~11월 2일
행사장소 서울 살곶이 체육공원
주요내용 숯불구이축제, 한우 무료 시식회,
한우 할인 판매 등

여주오곡나루축제

행사주최 전국한우협회 여주시지부
행사일자 10월 26일~10월 28일
행사장소 실룩사관광지
주요내용 한우 무료 시식회, 한우 할인 판매 등

제2회 도농상생강원축산물소비촉진행사

행사주최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
행사일자 10월 19일~10월 21일
행사장소 춘천역 앞
주요내용 숯불구이셀프식당·판매장 운영,
한우 무료 시식회, 이벤트 등

진안홍삼축제

행사주최 전국한우협회 진안군지부
행사일자 10월 18일~10월 21일
행사장소 마이돈 테마파크
주요내용 한우 무료 시식회 등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

행사주최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행사일자 10월 25일~10월 30일
행사장소 내장산물테마파크 맞은 편
주요내용 한우 무료 시식회, 한우 할인 판매,
이벤트 등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행사주최 전국한우협회 익산시지부
행사일자 10월 30일~11월 4일
행사장소 익산중앙체육공원
주요내용 한우 무료 시식회 등

농상품대축전

행사주최 전국한우협회 서천군지부
행사일자 11월 9일
행사장소 서천특화시장 주차장
주요내용 한우 무료 시식회 등

Hanwooboard

한우 비즈링

무료통화연결음

한우자조금에서 비즈링(컬러링)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 사이트 www.hanwooboard.or.kr에 방문하셔서
메인화면 '알림·홍보' ▶ '홍보자료' ▶ '한우송 듣기' ▶ '비즈링 신청'
▶ **신청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 차후 비즈링 해지는 고객센터 1544-320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 번호·통신사 변경 시 비즈링이 자동 해지되오니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듣기 좋고
귀여운
비즈링~
친구·지인들이
좋아해요~

HANWOO

BIZ
Ring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웹진으로 만나는 방법!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아래 4가지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 웹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 방법!** 네이버나 다음 포털 주소창에 한우자조금 웹진 주소(www.hanwoonews.com)를 입력하세요.
- 세 번째 방법!** QR코드를 스캔하세요. QR코드 스캔 방법은 네이버 창을 연 후 검색창 옆의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네 번째 방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에서 소식지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에 한우자조금 소식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세요!

안드로이드

- ①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②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홈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콘 생성 완료



아이폰

- ①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②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④ Safari의 하단 '공유탭'을 클릭한 후 '홈 화면
추가'를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푸짐한 선물이 팡팡!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응모방법

옆의 방법에 따라 핸드폰에 웹진 <한우자조금> 아이콘을 생성한 뒤,
웹진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한우 응원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아래의 정보란에 정보를 남겨주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18년 10월 31일(수)까지
당첨자발표 2018년 11월호 한우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 연락
문의 02-324-6852

지난호 당첨자

한우육포

이민정, 이춘임

한우야 놀자

김완중, 박소영, 장동학, 정여주, 정수정

한우버거

나리, 이병수, 유영옥, 애란, 정상민, 황윤성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만점 간식
<한우육포> 2명



한우 사육의 지침서
<한우야 놀자> 10명



두툽한 한우패티가 버거 속에
<한우불고기버거> 10명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협력사인 디자인신화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1회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날!



"오늘 한우 먹을까?"
한국인의 힘
한우!



1
1등급 이상

+

1
1인분 기준(200g)

+

1
1만 명

